승부처는 스펙이 아니라 영성이다

(시편 83:1~18)

1.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2.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3.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4.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승부처는 스펙이 아니라 영성이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승부처는 스펙이 아니라 영성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생 졸업반들은 취직을 위한 스펙을 쌓으려고 합니다. 또한 이미 중장년이 되신 분들도 좀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능력을 키우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영성에 관심 갖기를 바라십니다.

삶의 승부처는 스펙과 능력과 기능이 아니라 영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삶의 승부는 진심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일에 대한 보람도 스펙과 능력과 기능이 아니라 영성에 달려있습니다.

영성적 부모가 되어야 하고 영성적 사장님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과장님과 부장님도 영성을 가져야합니다. 교수든 택배기사든 영성은 필요합니다. 다른 모든 자리도 마찬가지로 삶의 승부를 결정짓는 것은 영성입니다.

영성은 곧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이 존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대부분의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존엄성의 크기만큼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전부 자신의 등급을 낮추어 살아갑니다. 본래 주어진 존엄성 즉 본전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드뭅니다. 이 본전 유지는 곧 영성에 달려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직장에 나가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할 때에도 영성을 가지고 장사를 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가정에서 직장에서 시장에서 학교에서 영성적인 삶을 살아 인생의 승리자

가 될 수 있을까요?

본 시는 이방족속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선민을 없애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방사람들의 동맹국의 시도를 저지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특이하고도 웅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서 무려 열 나라가 열거됩니다. 북 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시점이어서 남 왕국 유다를 둘러싼 거의 모든 이방민족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빠진 민족이 있더라도 선민을 위협하는 모든 민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십(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하고 충만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선민은 언제나 말살시키려는 이방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적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선민의 존재의미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어쩔 수없이 영성을 말살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민은 이러한 분위기의 무게를 뚫고 오히려 영성을 회복하면서 살아감이 요구됩니다.
영성 말살이 뜻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전에 살펴보았던 성경의 삼층 세계관을 다시 떠올려봅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을 삼층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층 세계관을 통해서 영성적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영성 말살의 분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과장이라면 단순히 직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삼층의 세계에 속해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도 이는 단순히 가정에 속한 것이 아닌 삼층의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허물과 죄'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2절에서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라고 설명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는 것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지금도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이어지는 3절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중과 육체의 차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20절을 보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방식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서 하늘을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위의 것과 땅의 것 사이의 우리의 마음이 끼어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속한 공중이 있고 육체가 속한 땅이 있습니다. 이것이 삼층 구조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마음이 있는 공중의 영역은 사탄에게 정복되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을 가지고 있고 이 공백은 흡입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에게 속으면서 이 흡입력이 하늘이 아닌 땅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흡입구를 땅으로 향하고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땅의 가치들로 채우려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게 사로잡힌 마음 상태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왔는데 바로 이러한 상태가 영성이 말살된 상태입니다.

'영성(靈性)'이란 곧 영에 대한 관계에서 갖게 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모성(母性)은 아이를 낳아 어머니가 될 때에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생겨나는 마음상태입니다. 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성은 인간의 마음이 사회에 대해 갖는 마음가짐과 속성을 의미합니다. 모두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지배된 공중에 속한 마음이 땅을 향하게 되면서 영성은 말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늘의 영역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서는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우리의 삶은 영성이 말살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영성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영성을 회복하면 승부가 결정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라고 하였습니다.
본래 인간은 육신을 입고 태어나냈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는 바로 공중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일컫는 것입니다. 마음이 육신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비어있어서 하나님을 흡입하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통해서 만나는 것들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게 되었음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육신화 될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좋은 것은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삼층 구조에서 마음의 흡입구를 땅으로 고정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늘에서 주어지는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영성 말살의 상황입니다.
공중의 있는 마음의 흡입구를 하늘로 향할 때에만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에덴을 주신 것처럼 낙원의 삶이 허락될 터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마음의 흡입구를 땅으로 향했을 때에 에덴은 상실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직장에 나가서도 마음의 흡입구를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삼층 구조에서 공중에 위치한 나의 마음의 흡입구를 직장이라는 땅의 영역을 향하지 않고 하늘의 영역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라는 것은 곧 인간이 한낱 고깃덩이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인간은 인간

을 비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비하할 만한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만 이 고깃덩이가 지정의(知情意)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여전히 예술 활동을 통해 아름다움을 창조할 줄도 압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의 계획이 악할 뿐이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코 예술적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하지 못하게 되었기에 악하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여전히 지정의를 가지고 부모노릇을 잘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심지어 인류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노벨상을 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때에 이러한 가능성을 가진 자들을 고깃덩이로 여겨 쓸어버리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쓸어버리시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깃덩이들을 영성적 존재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고깃덩이로서 아무리 지정의의 능력을 갖추고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박학다식한 지식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결코 결정적이고 지속적이고 궁극적인 완전한 행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영성적 존재가 될 때에만 완전한 행복은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주변의 모든 분위기가 영성을 가진 선민 됨을 말살하려고 합니다.
이방나라의 동맹군이 남 왕국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없애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삶에서 십자가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시도하는 영성 말살입니다.
이러한 영성 말살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십자가 생활화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와 성전이 가지는 기능상의 의미는 곧 땅을 향해 고정되었던 마음을 하늘로 보내는 것입니다. 땅으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했던 마음의 상태가 죄악 된 존재임을 깨닫고, 번제단에서 상번제로 어린양이 죽을 때마다 그 죄악 된 마음이 함께 죽습니다. 그럼으로써 육체를 통하여 만족하려는 마음의 묶임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성전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땅에서 만족을 찾고 소원을 갖는 마음을 죽임으로서 하늘을 향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과 십자가는 땅에 묶인 끈을 끊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자유를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갖게 될 때에 삼층의 맨 아래 층인 땅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삼층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와 성전이 땅에 만들어진 이유도 우리의 마음이 땅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을 향하던 마음이 성전과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성전을 파괴하고 십자가를 삶에서 말살하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 주변이 동화되면 스스로 삶에서 영성을 지워버리게 됩니다.
영성은 곧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

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깃덩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깃덩이에게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주어질 수도 없으며 주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처럼 고깃덩이가 된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지 않으시는 이유는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고깃덩이가 영성적 존재가 될 가능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잊지 말고 어디를 가든 삼층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에 가서 할 일은 땅에 있는 직장으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는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공중에 있는 마음이 땅에 있는 직장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육체가 있는 직장에는 하늘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갑니다. 영성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성이 회복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공부를 하게 할 수도 있고, 졸업반이라면 자격증을 따게 하셔서 스펙을 쌓게도 하십니다. 이러한 삶은 말살된 영성을 가지고 행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영성 없는 스펙을 아무리 추구해보아도 어떠한 기쁨과 만족도 얻을 수 없습니다. 스펙과 기능과 자격보다 항상 영성이 앞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갖추게 된 스펙은 버릴 것이 없이 사용될 것입니다. 반대로 영성이 말살된 상태에서 추구된 스펙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십중팔구는 쓸모없는 노력이 될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 주변이 영성 말살의 분위기로 가득 차 있어서 열 국가가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침공하려 함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으로 들어오시고자 하는데, 직장에서는 그것을 방해하려하는 움직임이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삼층 구조를 기억하고 기도한다면 직장생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직장에서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회복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를 둘러싼 모든 주변국들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이들은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려하는 원수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성을 회복하면 어디서든지 땅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영성회복은 곧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나가서도 5분이고 10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승진이나 월급으로 인해 기뻐하려고 할 때에, 오직 하나님으로 기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똑같이 승진과 월급으로 기뻐하려던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임으로서 공중에 있는 내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해

야 합니다. 이것이 영성을 회복하는 삶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비어있기 때문에 어차피 기쁨과 만족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의 분위기를 피해 화장실에서라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기를 바라며 기도할 때에 영성은 회복됩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물건을 많이 팔아야 기쁘기 때문에 자꾸만 이 땅의 장사라는 현실 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게 됩니다. 그 분위기에 압도당하면 영성은 말살되어 갑니다. 이러한 모습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장사하러 나간 그 곳이 동맹국에 둘러싸인 남 유다의 모습입니다. 주변의 모든 상인들은 물건 많이 파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만 홀로 그 포위망을 뚫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이렇게 영성을 회복할 때에 고깃덩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성이 죽은 자들을 쓸어버리실 고깃덩이로 여기실 뿐입니다. 다만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가 영성의 회복이라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깃덩이와는 관계하실 수 없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수도 없을뿐더러 내리신다고 해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수위 일을 해도 영적인 수위입니다. 과장이면 영적인 과장입니다. 사장이면 영적인 사장입니다. 설령 감옥에 갇힌 죄수일지라도 영적인 죄수가 되세요. 그 감옥 안에서도 영성의 삶은 이루어질 수 있고 에덴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스펙이 아니라 영성이 인생의 승부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영성을 회복하고 영성이 이끄는 중에 스펙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습득한 스펙은 100%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여기며 이 땅에서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는 영성 말살의 상태에서는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공회전 시키는 삶이 계속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는 고깃덩이라는 별칭이 붙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성적 존재들이 되어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영성이 회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만으로 마음이 기쁘고 만족하기를 추구하여 육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